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땅 투루판(아이딩호)

뜨거운 아침이 밝았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8시라곤 하지만(중국은 어느 지역에서나 북경 기준 시간을 사용한다. 북경과 신장지구와는 실제로 두 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어야 한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동네를 나가보니 해는 중천인 것 같지만 아직 이른 아침인 듯하다. 아이들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집안이 더워서 투루판 사람들은 집의 옥상이나 마당, 혹은 집 앞에 침대를 놓고 잠을 잔다.

부지런한 이들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동네의 회교 사원 옆에 자리한 정육점에는 갓 잡은 듯한 양고기가 걸려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양고기 값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려간다고 한다. 물론 갓 잡아 올린 양고기가 질이 좋고 비싸다고 한다. 당연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인데, 아무리 건조한 곳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이겠지. 그러나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언젠가 방콕 거리에서 비슷한 상태로 팔고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길거리 거의 전체에서. 그 당시도 이런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부패하지 않고 팔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다. 왜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향채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정 중에 향채의 향이 짙다고 느낀 음식을 먹고는 심한 배탈이 났다. 태국의 방콕에서 먹었던 음식도 역시 향채가 들어가 있었다. 그것만 없으면 음식이 아주 입에 맞는데 향채는 영 맞지 않았다. 혹시 상한 맛이나 냄새를 없애려고 향채를 스는 것은 아닌가?

사거리의 한 모퉁이에서는 낭을 구워내느라 정신이 없다. 낭은 밀가루 반죽을 하고 적당하게 버터기름을 발라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서 화덕에서 구워낸 빵이다. 위구르족의 주식이다. 마치 낭 하나가 우리의 공깃밥 한 그릇을 대신한다고 생각되었다. 각 집에서 낭을 구워먹기도 하지만,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인가 대부분



사진 1. 야외에서 자고 있는 아이와 침대



사진 2. 시골의 정육점과 회교사원



사진 3. 빵가게의 아침

사람들이 낭을 사다 먹는 것 같다. 가격은 중국 화폐로 3위안 정도인 듯하다.

대로에 나가니 벌써 열기를 식히느라 인도에 물을 흥건하게 뿌렸다. 이미 도로가의 나무에는 한 바탕 물을 퍼 붓고 난 후이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타클라마칸에서), 아침 7시는 나무에 물을 주는 시간이라 한다.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시내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나무에 물을 부어대는 듯하였다. 아침을 위하여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관광객을 만났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제 하루 종일 방에 콕 박혀 있었다면서, 서울에서 별 일이 없었냐는 것이다. 어제 돌아간 일행 셋이 떠올랐다. 그 팀의 가이드가 밝은 위험하니 방에 조용히 있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한다. 그런 가이드가 안내를 맡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되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북경에서 확인한 사실인데, 전체 5만 명이 중국의 실크로드 여행을 취소했다고 한다.

가이드의 말로는 오늘 낮 기온이 42℃까지는 오를 것이라 한다. 그런 날씨에 육지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아이딩호를 간다. 아이딩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어렵지도 않았다. 중국 신장지구의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도로에서 표지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화염산에 거의 다 이를 무렵 남쪽으로 길을 들었는데 삼거리를 만났다. 아무런 표지판이 없다. 게다가 길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은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 위구르어를 사용하니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말은 안 통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지방의 특산품인 하미과를 팔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잠시 표지판을 찾으러 뛰어다니는 사이 동네잔치라도 벌어진 분위기였다. 같이 갔던 집 아이는 하미과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사진 5. 하미과를 파는 위구르인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딩호를 향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가고 싶었지만, 가이드가 ‘갈 수 없는 곳이다.’는 한 마디에 포기를 하였다. 애초에 약속하지 않았던 곳이라 더 이상 할 말도 없었다. 출발 전에도 웬지는 모르지만 여행사에서 아이딩호는 빼려고만 하였다. 그렇게 가기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투루판에서 아이딩호까지는 그리 험한 길이 아니었다. 길에 표지판이 없어서 여러 번 길을 묻기는 하였지만, 험한 길은 아니었다. 마지막 200여m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장길이었다(혹시라도 후에 그곳을 찾을 이들을 위하여 밝혀둔다).



사진 4. 아이딩호 표지판

아이딩호(艾丁湖)에서 가장 낮은 곳은 해발 -154m이다(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은 사해이다). 아이딩호는 ‘달빛 호수’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찾았을 때는 달빛을 볼 수 없었다. 그저 아이딩호를 찾았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어디에 해발 몇 m라고 표시

해 놓은 것조차도 없었다. 그런 곳 정도라면 곳곳에 해발고도를 표시해도 좋으려만. 바짝 마른 땅 뿐이었다. 당연히 가이드도 아이딩호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듯하였다. 높은 곳에 올라보니 멀리 물이 보였다. 물을 향하여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마를 대로 말라버린 흙먼지 날리는 호수 바닥일 뿐이었다. 다시 간만큼 떨어진 곳에 물이 보였다. 이제야 깨달았다. 저 물을 쫓다가 죽는 것이구나. 그렇다 물은 볼 수 없었다. 더구나 여름철에는 관개용을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양 자체도 적다고 한다. 다만 물이 고였던 흔적만 남아 있다.

아이딩호를 떠나는 마음은 뭔가가 뒤에서 나를 끄는 듯만 하였다. 뭔가를 해결 짓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호수를 찾고도 고도가 얼마인지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당연한 일 이리라. 돌아오는 길에 양수기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을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제 고창고성으로 향한다. 분명 기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사막에서는 방향감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디를 보아도 비슷하게 보였다. 마치 호남평야를 답사하다 길을 잃는 것과 같았다. 도중에 하미과를 포장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하미과를 모아놓고 상자에 포장하는 것 같았다. 우리도 타클라마칸을 넘을 것을 대비하면서 하미과를 충분히 준비하였다. 반은 사고 반은 받았다고 한다(하미과는 1kg에 4위안쯤 함). 게다가 우리가 다니면서 쓰라고 칼도 선물하였다고 한다. 위구르인들의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한다.

고창고성은 두 번째의 방문이다. 차에서 일행에게 절대로 아이들이 파는 물건에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년 전의 경험에 의하면 일단 하나를 사면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라고. 다행이 일행은 그 말을 잘 따라주었다. 막상 그러고 나니 동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사탕 하나를 받아들고 맛있다고 아끼면서 먹는 아이들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그 부모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을 빨리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일행은 넷씩 나귀 차에 나누어 타고 입장하였다. 그 길을 곳곳하게 걷는 서양 사



사진 6. 말라버린 아이딩호



사진 7. 하미과를 파는 사람들



사진 8. 고창고성의 나귀차

람도 있었다. 바로 이웃으로 화염산이 보여서 그런지 나귀 차에 앉아 있어도 얼굴이 익는 듯하였다. 마치 엉덩이가 나귀 차에 달라붙는 것 같다.

고창(高昌; 가오창)은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되었고, 비단길의 중요한 도시였으나 14세기에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고창고성은 투루판 외곽 30km 거리에 남아있는 왕궁터 유적이다. 고창은 서역에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고창고성은 현장법사가 설법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장법사가 천축국(지금의 인도)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고창국 국문태의 초대를 받아 630년 2월경에 도착하여 1개월간 고창국에 들렀다. 이때 고창고성에서 법회를 열어 한 달 동안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설법했으며, 오늘날 그 건물이 복원되었다. 벽체는 사각형이고 천정은 원형으로 음향 효과를 주기 위한 구조라고 한다.

고창고성을 나서니 오후 2시 20분이다. 이쯤이면 점심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여행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다. 이제도 한 곳을 더 보고 먹어야 한다. 점심은 시내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곳을 갔다 오는 것이 너무 멀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무튼 이 년 전과 달리 화염산은 붉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치 손을 대면 달구어진 프라이팬과 다를없을 것 같다. 이제 그 골짜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년 전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일정 마지막에 이곳을 찾다보니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임파선이 붓고 힘들었던 기억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도 썩썩하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빼고는.

화염산의 골짜기에는 베제클리크 천불동이 자리하고 있다.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바위를 깎아 만든 77개의 석굴이다. 대부분 사각형의 공간에 둥근 아치형 천장을 하고 있으며 불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동굴들에는 천장 전체가 수십 점의 불화로 그려진 벽면으로 되어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 많은 부분이 도굴되고 파손되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불화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고, 그나마 사진을 못 찍게 한다. 두 사람이 우릴 감시하느라 줄줄 쫓아다녔다. 신기하게도 이곳의 벽화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일본



사진 9. 고창고성



사진 10. 화염산



사진 11. 화염산 계곡

인이 도적질을 하고 가던 길에 우리나라에 두고 간 것이다. 천불동 앞에서는 한 위구르 노인이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다.

골짜기 아래로는 천산에서 흘러온 것으로 보이는 강물이 있어서 푸른색을 띠고 있다. 천불동의 입구에는 낙타가 손님을 기다린다. 이년 전과 달라진 것은 그곳을 향하여 사진을 찍으면 돈을 받는다고 한다. 오늘은 날씨가 쾌청하여 멀리 천산의 만년설도 보인다. 화염산을 빠져나와 시내 입구로 들어서려니 역시 군인과 공안이 검문을 하고 있고 시간은 오후 4시를 넘어서고 있다. 하루가 정말 길다. 이제 하루에 절반 밖에 쓰지 않았다니! 다시 어젯밤 숙소로 돌아가 점심을 먹었다. 이 집은 한국인 전용인가 보다. 고추장이 나온다. 오후에는 카레즈 박물관과 포도원, 소공탑을 둘러볼 것이다.

카레즈는 지하의 인공 수로이다. 하도 건조한 곳이라 증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지하에 수로를 만든 것이다. 투루판시에 1,000여개의 수로가 있으며 그중 오늘날에도 700여개 수로가 사용 중이라고 한다. 투루판의 수로의 총 길이가 5,000km에 이른다. 바로 그 카레즈가 투루판의 포도를 유명하게 한 것이다. 도로를 달리다보면 소보로 빵 모양의 작은 언덕이 줄을 서 있다. 그 아래에 카레즈가 있다. 수로를 파내면서 나온 흙은 쌓아놓은 것이다. 박물관은 실제 카레즈를 이용하면 만든 것이라 한다. 아직도 여전히 그 물이 흐르고 있다. 수로를 파는 방법에서부터 물을 퍼 올리는 장면, 흙을 밖으로 퍼내는 방법 등을 잘 보여준다.

투루판은 포도의 고향이라 할 만큼 포도가 유명하다. 특히 건포도가 이곳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럴 듯하다. 포도를 그저 길바닥에 던져놓기만 하여도 마를 듯하다. 혹시 마르기 전이 썩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하지만, 초록색은 모두 포도밭이다. 집이 아니면 구조물은 모두 포도 건조장이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원했던 것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맘대로만 되지 않았다.

다시 이 년 전에 이어 한 포도 농가를 찾았다. 둘러보니 집은 다른데 그 때 그 사람이다. 일행 중에는 그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포도원이 특별한 것은 없었다.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는 하지만 아직 익지 않은 포도를 먹을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여인의 무용 공연이 있었다. 물론 우리 일행도 같이 공연에 참여하였다. 이 년 전과 똑 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건포도 장사도 하고, 달라진 것은 내가 그 건포도를 샀다는 것이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소공탑 차례이다. 소공탑은 이슬람 사원에 있는 것으로 44m의 높이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이슬람 탑이다. 이 탑은 청나라 건륭제 때인 1777년 시작되어, 1



사진 12. 카레즈



사진 13. 포도원과 포도 건조장



사진 14. 소공탑

년 만에 완성된 탑이다. 소공탑은 다른 위구르 모스크나 이슬람식 탑과 같이 이슬람 전통 양식과 위구르 전통 건축 양식을 결합한 것이라 한다. 소공탑의 마당은 해발 0m의 지점이다(전적으로 가이드의 말에 의한 것이며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주변은 온통 포도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년 전에는 금요일이라 기도 중이어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였다. 안은 밖의 화려함과 달리 소박하였다. 그것이 이슬람의 특징이라 한다. 잠시 뒤로 돌아가보니 사원의 공동묘지였다. 이년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공동묘지이다. 그러니 한 번 방문하고 모든 것을 보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공동묘지는 이슬람에서도 그 크기에 따라 지위와 신분이 들어난다고 한다. 아주 큰 묘지 옆에 양의 머리가 있는 것이 특이하었다. 묘지를 빠져나오니 저녁 7시이다. 하루가 이렇게 길다니! 바자르라도 들르고 싶지만 모두 만만한 기력이 아닌듯하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미리 하는 파티가 있다. 뭐 별 것은 아니지만 양 바비큐가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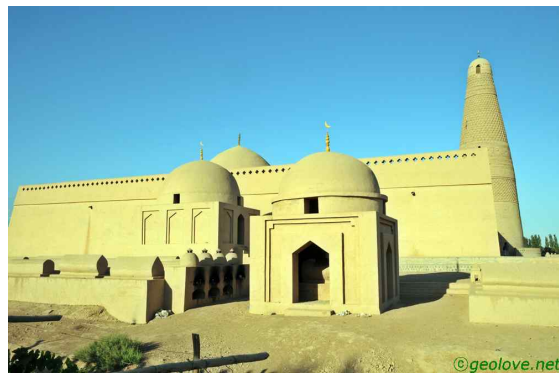


사진 15. 소공탑의 공동묘지